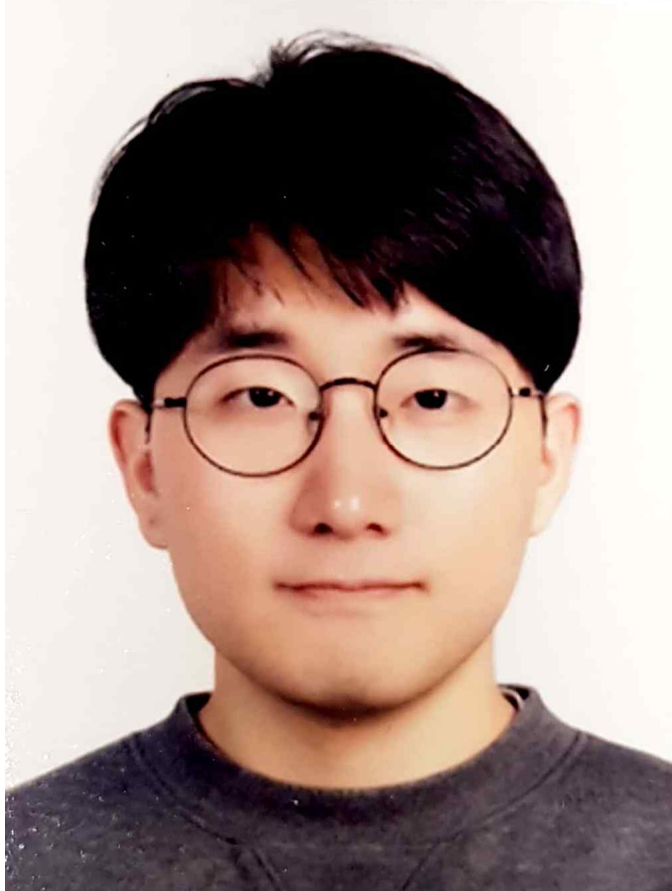


# 지스트 박사과정생, 하버드 의대 산하 연구소에서 실시간 혈류 측정 시스템 연구 수행

- 의생명공학과 오윤호 박사과정생, 보건복지부 'K-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' 선정돼 오는 2월 하순부터 미국에서 관련 연구 수행



▲ 2022년 보건복지부의 'K-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'에 선발되어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의생명공학과 박사과정 오윤호 씨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의생명공학과 박사과정 오윤호 씨(지도교수 김재관)가 보건복지부의 'K-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'에 선정돼 하버드 의대 산하 의료영상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한다.

오 씨는 작년 11월부터 지스트에서 실시간 혈류 측정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, 2월 말 세계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(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) 내 의료영상 연구소인 '아티노울라 A. 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센터(Athinoula A. Martinos Center for Biomedical Imaging)'에 파견돼 '실시간 혈류 측정이 가능한 카메라 기반의 간섭계 확산파 분광법 시스템 개발 연구'를 약 1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.

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센터는 의료영상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병원 연구기관으로, 오윤호 씨가 속한 Stefan Carp 교수팀은 비침습적으로 혈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'확산 상관 분광법 기술' 과 '간섭계 확산파 분광법 시스템의 개발'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.

오윤호 씨는 "카메라 기반의 간섭계 확산파 분광법 시스템은 국내에 아직 구현되지 않은 혈류 측정 기술로, 갑작스러운 체내 혈류 이상 예측 및 연속적인 모니터링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술"이라며, "파견 기간 동안 **진보된 혈류 측정기기 개발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다**"고 말했다.

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'K-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' 프로그램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, 선정된 대학원생을 해외 기관에 파견해 최대 18개월간 해외 체제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.